

LG전자, 전장·공조 수주 이어져… 내년 매출 100조 기대감

북미서 5GW 대규모 냉각사업 수주
유럽 등 전장사업 실적 개선세 지속
증권가 내년 연결매출 102.3조 전망

LG전자가 전장에 이어 공조에서도 대형 수주를 확보하면서 내년 사상 첫 매출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장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까지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면서 가전과 TV에 집중됐던 사업 구조가 B2B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미국법인인 LG전자는 지난 5일 북미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에어 컨트롤 콘셉트와 냉각 솔루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에 들어서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형 냉방 설비인 칠러를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총 5기가와트(GW)로 LG전자가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냉각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계약은 여러 해에 걸쳐 냉각 설비



LG전자는 르노그룹의 '뉴 트래픽 이테크 일렉트릭(New Trafic E-Tech Electric)'에 차세대 통합 콕핏 솔루션을 공급한다. /LG전자

를 공급하는 장기계약이다. LG전자는 칠러에 이어 서버의 열을 직접 식히는 액체 냉각 장비까지 공급 제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냉각 수주도 확대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수주액 6000억원을 넘어섰다. 회사는 연말까지 누적 수주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초 2027년 말로 잡았던 칠러 사업 매출 1조원 달성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체냉각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600킬로와트(kW)급을 시작으로 1메가와트(MW), 2.5MW급 냉각수분배장치(CDU) 인증을 순차적으로 확보했으며 현재 4MW급 제품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CDU는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고 회수하는 장비다.

냉각 사업은 전장보다 수주가 매출로

전환되는 기간도 짧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6일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의 수주잔고가 연말 약 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장은 수주 이후 매출 인식까지 2~3년이 걸리는 반면 냉각 사업은 약 8개월 가량 소요돼 내년부터 기존 수주 물량의 매출 반영과 신규 수주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장 사업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약 100조원의 전장 수주잔고를 확보한 가운데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판매 확대와 원가구조 개선으로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수익성 개선은 연간 실적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전장 사업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6.6% 증가해 매출 증가율 전망치인 11.9%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회사는 르노그룹의 유럽 첫 상용 SDV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제어하는 통합 콕핏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북미와 아시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로 SDV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장과 공조 사업이 확대되면서 LG전자의 B2B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에서 B2B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집계됐다. 전장과 공조를 중심으로 B2B 사업을 확대하면서 가전과 TV 등 소비자 대상 사업에 집중됐던 매출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B2B 사업 확대는 내년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LG전자의 내년 연결 매출을 102조336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LG전자는 내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0조원을 넘어선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LG전자의 고효율 칠러, 고성능 액체냉각 솔루션을 비롯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마땅한 투자처 없다”… 은행 요구불예금 급증

지난달 말 675.5조… 한달 새 1.6%↑
자산시장 관망세·기업자금 유입 영향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한 달 전보다 1.6% 증가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린 영향이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조건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말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75조 52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해 1.6% 급증한 규모다.

이처럼 요구불예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증시정체와 맞물린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보다 향후 투자 기회를 기다리며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 자금 유입도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결제대금 유입과 함께 기업들이 운전자금 등 단기 유동성



자산시장 관망세가 확산하며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을 확보하면서 법인 자금이 요구불예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시장의 관망 심리는 증시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대금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월 4일 139조6048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달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04조6376억원으로 6월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반면 정기적금 잔액은 늘었다. 5대 은행의 9월 말 정기적금

잔액은 46조2749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66% 증가했다. 증가액으로는 약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월간 증가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1조2157억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요구불예금과 정기적금이 동시에 늘었지만 자금이 움직인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증시의 방향성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투자 기회를 기다리며 요구불예금에 자금을 대기시키는 반면, 당장 투자 계획이 없는 자금은 높아진 예·적금 금리를 활용해 확정금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보다 일단 유동성을 확보한 채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장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요구불예금에 대기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 계획이 없는 자금은 금리가 높아진 예·적금으로 옮기는 등 자금 운용이 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metro

올 들어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 1%p 급등… 빛의 악순환 우려

》1면 ‘금리의 역습…’서 계속

◆한국 ‘채권 자경단’ 안전지대 일까

시장에서는 한국도 ‘채권 자경단’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에 82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국가 채무는 작년 한 해에만 129조 원이 늘며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엔 1412조8000억원으로 7년 만에 2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채권 시장도 지출확대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가 발행한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4.5% 안팎까지 올랐다. 올 들어서만 1%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도 끌어올릴 수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경기에도 부담이 되고, 미래 이익의 현재 산정 가치가 낮아지면서 성장주와 기술주 등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적자 국채 의존

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빛의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선진국들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에 지급한 이자는 3조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지만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질 필요가 있으며 그 추매제는 성장동력화보다는 물가, 즉 유가 안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IMF EBA 개편, 韓 경상수지 불리하게 작용”

(대외균형평가)

한은 “저축성향 등 특수성 반영 못 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상수지 평가 모형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흑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포인트(p)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높은 저축성향과 빠른 고령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초과 흑자’가 크게 산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6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제2026-26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IMF는 지난 7월 대외부문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2025년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전년 대체로 부합’에서 두 단계 바뀐 평가로, 흑자가 적정 수준보다 크다는 의미다.

IMF의 대외균형평가(EBA) 모형은 경제구조와 정책 등을 고려해 적정 경상수지를 추정한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경상수지에서 적정 수준을 뺀 차이를 ‘경상수지갭’이라고 부른다.

2025년 한국의 실제 경상흑자는 GDP 대비 6.6%로 전년 5.3%보다 커졌다. 반면 모형이 산출한 적정 흑자는 4.7%에서 3.3%로 낮아졌다. 이에 모형상 경상수지갭은 0.8%에서 3.1%로 확대됐다. IMF가 고령화 등을 추가로 보정한 뒤 최종 평가한 경상수지갭은 2.5%였다.

김민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다른 조건을 같게 두고 인구구조 부문을 개편하기 전으로 되돌린 모형과 새 모형을 비교했다. 그 결과 개편으로 한국의 적정 흑자가 1.1%p 낮아졌다. 분석대상 26개국 중 하라푼이 가장 컸다. 개편에 따른 경상수지갭 확대분 1.1%p 중 94%에 해당하는 1.03%p는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의 증가였다. 김 과장은 이를 재정·외환 등 정책요인보다 모형의 한국 경상수지 설명력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고령층의 저축과 근로로 행태가 모형의 기본 가정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형은 은퇴한 고령층이 저축을 할어 소비한다고 가정하지만, 2025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저축성향은 32.2%로 전체 평균 30.9%보다 높았다. 평균저축성향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비중이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2025년 39.5%로 OECD 38개국 평균 14.1%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가구 자산의 83.1%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어서 저축을 할어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빠른 고령화에 대비한 저축 수요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개편 모형은 노후 대비 저축을 설명하는 변수에서 ‘20년 후’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비중으로 바꿨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2029년 4.9%p 높아질 전망으로, 분석대상국 중 위값 상승폭의 두 배를 넘는다. 낮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과 기금 소진 우려도 근로세대의 노후 대비 저축을 늘리는 요인이다.

내년에는 순대와자산에서 과거 초과 경상흑자·누적분 등을 털어내는 추가 개편이 예정돼 있다. 연구는 2012년을 누적 기준으로 삼으면 이 개편만으로 한국의 2026년 경상수지갭이 0.74%p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순대와자산 감소 영향까지 반영한 적정 흑자는 GDP 대비 2.2%였다.

올해 경상흑자를 GDP 대비 16.0~23.3%로 가정한 세 시나리오에서는 경상수지갭이 13.8~21.1%로 계산돼 모두 ‘상당폭 상회’ 구간에 들어갔다. 다만 이는 경기변동 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조건부 계산이다. 최종 개편안과 IMF의 보정에 따라 실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김민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한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